

<서평>

Discover the Bible: A Manual For Biblical Studies

(Roger Omanson, e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1)

김선정*

1. 서언

서문이 밝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라틴 아메리카의 크리스천들에게 성서와 그것의 번역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여진 *Descubre la Biblia*(1998)를 영어권 독자들을 위하여 번역·개정한 것이다. 스페인어로 된 *Descubre la Biblia*와 비교해서 영어로 된 『성서의 발견』(*Discover the Bible - A Manual For Biblical Studies*)에서 달라진 점은, 제15장 “언어학과 번역”이 같은 제목이지만 새로운 내용의 논문이고, 제19, 20, 22-24장은 완전히 새로 추가되었으며, 제13장 “성서의 시 번역”은 아르만도 레보라띠(Armando Levoratti)의 글을 대치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은 개별 저자에 의해 저술된 총 24개의 장으로 이루어졌고, 각 장에는 그 분야에서 지식을 보충하는 데 필요한 참고 도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자세히 다루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개괄적이고 폭넓은, 그러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집 목적에 준하여 이 책의 특징과 공헌을 평가하도록 하겠다. 서문을 비롯하여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부분별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 〈서문: 성서란 무엇인가?〉

아르만도 레보라띠에 의해서 쓰인 것으로, 성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세 가지로 답변한다. 첫째, ‘성서’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이다. 이것은 ‘책들’을 뜻하는 것이며, ‘구약’ ‘신약’이라는 단어는 성서 신학의 기본 개념인 ‘계약’, ‘동맹’, ‘유대 관계’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신약학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성서는 인간의 언어로 구체화한 것으로, 그 가운데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계시’) 하나님과 그 부름에 응답하는(‘신앙’) 인간과의 만남,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셋째,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시켜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소개는 성서가 역사를 매개로 한 하나님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담고 있다는 저자의 성서관을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었으며, 그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구원’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3. <제1부: 성서의 컨텍스트>

제1부에서는 성서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성서를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 시대의 지리나 고고학적 정보와 같은 성서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장이 구성되어 있다. “구약성서의 역사적 배경”(Samuel Pagán), “신약성서의 역사적 배경”(José Soto Villegas), “성서 지리학”(Pedro Ortiz V. & José Soto Villegas), “성서 고고학”(Edesio Sánchez).

“구약성서의 역사적 배경”에서는 기원전 2400년 이전의 원역사로부터 족장 시대(2200-1700 B. C.), 출애굽 시대(1500-1220 B. C.), 사사 시대(1200-1050 B. C.), 왕정 시대(1050-931 B. C.) 다윗 왕조 시대(931-587 B. C.), 바벨론 포로기(587-538 B. C.), 페르시아 시대(538-333 B. C.), 헬라 시대(333-63 B. C.)로 구분하여 성서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들과 팔레스틴과 그 주변 세계의 역사적 사건들을 비교, 제시한다. 그러나 저자는 서두에서 성서 문헌의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언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보전하고, 확인하고,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성서에 언급된 역사 서술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약성서의 역사적 배경”에서는 신약성서의 배경이 되는 유대, 그리스, 로마의 세 가지 컨텍스트를 다룬다. 유대적 배경으로는 메시아 사상, 사회 계층과 종교 분파들, 구약 성서를 비롯한 유대 문헌들의 영향이 주목되었고, 신약 시대에 헬레니즘의 확산의 한 예로 히브리 성서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의 탄생과 사용, 또한 그리스어를 사용하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활동을 들었다. 63 B. C. 로마의 팔레스틴 점령 이후 팔레스틴과 그 주변 지역은 강력한 로마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데, 신약 성서는 이러한 로마의 통치가 초래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복음서가 기록되는 1세기 말까지 신약성서의 연대기를 로마와 팔레스틴의 통치자 연대기와 함께 제시한다.

“성서 지리학”에서는 특정 지역이 가진 삶의 조건들은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규정짓는다는 의미에서 성서에 언급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성서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공간, 지역적 특성에 주목한다. 저자는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명칭, 지리적 경계, 기후, 동식물의 종류, 인구, 직업, 교통로, 생활 방식 등을 소개한다. 또한 지리적 특성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독사의 자식들’이나 ‘약속의 땅’과 같은 표현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신구약 성서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지도들을 첨부하고 있다.

“성서 고고학”의 주요 목적은 성서와 그것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입증하고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성서 고고학은 첫째, 성서의 역사를 세계 역사의 일부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성서의 특정 구절들을 좀더 주의 깊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준다. 셋째, 성서 시대의 문화적, 종교적 상황을 알려준다. 넷째, 종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째, 고고학적 발견으로 성서의 언급들이 확인된다. 여섯째, 라스-샤므라, 쿰란, 에블라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성서의 문학적, 언어학적 연구에 기여한다. 일곱째, 고고학적 발견들은 오랫동안 지지되어 왔던 이론들을 반박하거나 확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성서학 연구에 기념될 만한 고고학적 발견들로, 베히스톤 비문(1835), 모압 석주(1868), 히타이트 제국(1871, 1906), 함무라비 법전(1901), 누지 & 마리 토판 문서(1925, 1936), 라스-샤므라 토판 문서(1929), 라기쉬 문자(1935, 1938), 사해 사본(1947)을 들고 있다.

4. <제2부: 텍스트와 정경>

제2부에서는 성서 번역가들이 다양한 사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독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성서 본문들의 문제와 교회가 특별한 책들을 거룩한 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다룬다. 모두 네 장, “히브리 성서의 텍스트”(Robert Bascom), “신약 성서의 텍스트”(Roger L. Omanson), “구약 성서 정경”(Samuel Pagán), “신약 성서 정경”(Plutarco Bonilla Acosta)으로 구성되어 있다.

“히브리 성서의 텍스트”에서는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 성서의 역사를 기원전 약 1000년 경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이 기원후 9-10

세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47년 발견된 콤파 문서들은 히브리 성서 본문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보여 주었다. 무엇보다 콤파 문서들은 다양한 사본 유형들을 통해서 기원전 70년 이전의 히브리 본문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유동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히브리 본문들은 문화적 압력 속에서 (페르시아와 헬레니즘의 영향) 정경화와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70-135 C. E. 가속화 된다. 저자는 원래의 독법을 찾아 나가는 본문 비평과 다양한 본문들 중에서 특정 본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번역 작업의 긴장 관계를 창세기 9장 9절 하반절-10절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번역가가 마소라 본문이 아니라 70인역 같은 고대역을 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성서의 언어들 간략히 소개하는 부록을 실고 있다.

“신약 성서의 텍스트”에서는 본문 비평의 목표는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본들을 가지고 원문의 정확한 본문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본들의 종류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된다. 원문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들로는 그리스어 사본들, 다른 언어로 기록된 사본들, 그리스어 성구집, 초기 교부들의 문서들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 다양한 사본들을 통해서 본문의 다양한 읽기들이 나타나고, 본문 비평가들은 이러한 이독들(variant readings)을 본문 비평 원칙에 따라서 평가하여 표준 본문을 구성한다. 이처럼 구성된 본문으로는 1516년 출판된 에라스무스판의 본문인 Textus Receptus(TR)를 비롯해서 티셴도르프(Tischendorf, 1841, 8판 1869-72), 웨스트코트-호트(Westcott-Hort, 1881), 폰 조덴(von Soden, 1902-13), 보겔(Vogels, 1920, 4판 1955), 보보(Bover, 1943, 6판 1981), 네스틀레-알란트(Nestle-Aland, 1898, 27판 1993), 메르크(Merk, 1933, 11판 1992)의 본문이 있다. 최근에는 네스틀레-알란트의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aece*)가 본문 비평 장치를 강화하여 27판으로 출판되었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번역가들에게 필요한 비평 장치만을 선별한 번역가들을 위한 『그리스어 신약성서』(*Greek New Testament*)의 제4판이 출판되어 있다.

“구약 성서 정경”에서는 썸어(갈대, 등나무)에서 유래한 그리스어 *kanon*은 규칙이나 측량의 기준 또는 패턴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교에서는 2세기에는 신앙의 규칙, 종교적 규약, 불변의 종교 예식으로 여겨졌고 여기에 덧붙여 4세기에는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히브리 성서 정경은 토라, 느비임, 케투빔(총칭하여 타나크[Tanak]라고 부름)으로 구분되는 총 2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약 성서와 내용적으로는 동일하나, 책의 분류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구약성서 39권). 토라, 느비임, 케투빔이 순차적으로 정경화 단계를 거쳤다는 전통적인 이론은 더 이상 지지되지 않

고 있으며, 타나크의 책들(22 또는 24권)이 거룩한 책으로 여겨져 왔고,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가 되어서야 권위 있는 책들의 최종 목록이 갖추어졌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스어를 말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데, ‘70인역’이라고 불린다. 70인역에는 외경(프로테스탄트 교회), 또는 제2정경(카톨릭 교회)으로 불리는 목록이 추가되어 있다. 그 외의 그리스어로 된 히브리 성서는 아퀼라역, 심마쿠스역, 테오도션역 등이 있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책들을 선별하는데, 오랜 세월의 논의를 거쳤으며, 교회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는 마지막으로 히브리 성서, 70인역, 불가타역의 정경 목록을 비교하는 도표가 실려 있다.

“신약 성서 정경”에서는 신약 문서들은 다양한 상황 아래서 다양한 문학적 형식(장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구전 전승, 문서 전승, 교회 내외의 압력, 다양한 권위 있는 문서 목록들의 등장(마르시온 목록, 타티안의 디아테사론, 무라토리 단편, 오리겐 목록,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목록 등), 교회의 공인,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정경’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특정한 문서들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발생하였다. 그 책들은 사용되고 인용되고 한데 묶여진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경’이라는 권위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4세기에 이르러 여러 차례에 걸친 교회의 공의회에 의해서 권위 있는 문서들의 목록이 공인된다. 저자는 여기에서 이러한 공의회의 인정이 ‘정경’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이미 인정하고 수용해 왔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함으로써, ‘정경’이란 결국 공의회의 산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한다.

5. <제3부: 주석과 해석>

제3부에서는 성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성서 주석” Edesio Sánchez), 성서를 해석하는 데 신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번역 작업에서의 신학적 성찰” Daniel C. Arichea),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 해석과 번역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살핀다(“구약 성서 번역의 문제점” Robert Bascom; “성서의 시 번역” Lynell Zogbo & Ernst R. Wendland; “신약 성서 번역의 문제점” Roger L. Omanson).

“성서 주석”은 해석학의 한 분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기술과 관련된다. 성서 주석 작업은 특정한 역사적 정황(주체와 객체의 정황)의 관점에

서 성서 본문(연구 대상)을 읽는 것(해석 주체의 읽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성서를 기초로 하고, 공동체에 토대를 두며, 영적이고, 상황적이고 선교적 성격을 지닌다.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우리가 성서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성서 본문이 우리와는 다른 역사적 정황을 갖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이 가진 언어적 특성, 문학적 구조와 양식, 역사적 정황, 신학적 의미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성서 본문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성서의 역사가 우리 자신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성서 본문과 우리를 연결하는 메시지를 찾게 된다. 셋째는 성서 본문이 우리와 대면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서는 우리와 우리 사회의 죄와 두려움을 드러내고, 현재적이고 구체적인 도전을 제공한다. 저자는 노예 해방이나 독재 권력 아래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바로 현실 속에서 성서의 메시지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라고 제시한다. 이 글에는 부록으로 참고 문헌 이외에 성서 연구 방법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를 실고 있다.

“번역 작업에서의 신학적 성찰”에서는 성서 본문의 번역이 그 본문이 지니고 있는 신학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때로 이것이 성서 본문의 신학에 충실한 번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는 첫째, 번역가가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번역 과정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번역가는 마태복음 6장 19절을 “이 땅에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둘째, 번역가 자신의 신학적, 문화적 환경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이다. 전도서 11장 1-2절의 경우, RSV는 비교적 문자적 번역을, TEV의 경우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자본주의적 관점의 번역을, LB는 관대함이라는 관점에서 번역한다. 셋째, 주석은 본문의 원저자가 초기 독자들에게 전달한 의미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 주석 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저자는 번역 작업에 신학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번역가들이 성서 저자의 삶과 의도, 사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성서학자들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접할 수 있어야 하며,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번역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구약 성서 번역의 문제점”에서는 많은 구약 성서 번역가들이 히브리어 본문인 마소라 본문 대신에 그리스어 본문인 70인역본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구약 성서 번역이 히브리어 본문과 여전히 거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글에서 번역의 문제점들로 제시된 것은 첫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본문의 의미가 번역 언어와 다른 경우를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경우이다. 신명기 6장 5절의

‘사랑하다’가 현대적인 이해와는 달리 ‘충성하다, 복종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한 예이다. 둘째는 본문과 번역 사이의 문화적이거나 신학적 요인으로 인한 간격 때문에 본문의 특정 부분을 여과시키는 경우이다. 성서 본문에 제시된 이름이나 숫자의 의미가 번역어에서 상실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 원래의 의미를 살린 번역보다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번역을 선호하는 경우이다. 시편 23편 6절에 ‘영원히’로 번역된 부분은 원래 ‘날들의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앞 구절에 나오는 ‘나의 사는 날 동안’과 평행을 이루는 것인데, 널리 읽히는 번역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넷째,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외의 기능을 가진 문구들의 번역이다. 창세기 23장 3, 7절의 ‘일어서다’라는 표현은 ‘그리고 나서’ 혹은 ‘그 후에’라는 의미를 가진다. 다섯째, 성서에 나열되는 목록 체계에 대한 이해이다. 통합적이고, 보편적이며, 교훈적인 성격을 갖는 성서의 목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록을 구성하는 원칙과 논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비유의 번역인데, 의미 전달을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 어조와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이 필요하다. 일곱째, 본문이나 번역 과정에서 죽음, 성, 신체 기능 등과 관련된 저속하거나 노골적인 표현으로 여겨지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원 본문에 충실하려는 문자적인 번역은 이해할 수 없는 번역 본문을 도출할 수 있고, 지나치게 번역 언어에 집중한 번역은 시대착오가 되거나 문화적인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원 본문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대의 관심을 담고 있는 용어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본문은 각주 등을 통해 의미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성서의 시 번역”에서는 형식, 리듬, 운율을 지닌 시 형식을 갖춘 성서 본문이 산문 형식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서에 나타나는 히브리 시의 번역 문제를 다룬다. 예외가 없을 수는 없으나 시가 시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좋은 원칙이며, 이것은 성서와 번역어 모두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구조적 특징과 음운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운적 특징은 번역된 본문에서는 감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히브리 시의 구조적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병행 구조로, 논리적인 관계, 시간적 관계, 문법과 관련된 형식적 관계 등으로 병행을 이루는 것이다. 반복되는 후렴구, 시작과 끝을 감싸는 포괄 구조, 교차 대구 구조 등도 병행 구조의 변형으로 제시되었다. 히브리 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음운적 장치로는 강세, 운율, 리듬을 제외하고는 번역 과정에서 그 효과가 대부분 상실된다. 그 외에도 자음 반복, 모음 반복, 의성어, 언어 유희 기법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히브리 시의 특징들은 히브리의 다른 문학 형식에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적 특징들을 살릴

수 있는 세심한 번역적 고려가 필요하다.

“신약 성서 번역의 문제점”에서는 신약 성서 번역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그리스어 본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법의 모호성,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언어의 이해 등이다. 번역어가 처해 있는 특수한 컨텍스트로 인한 문제도 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경우 명사가 나열되는 구조가 어색한 언어에서는 그 형태를 변형시킬 수밖에 없다. 신약 성서의 번역은 담화나 대화를 많이 포함하는 복음서와 논쟁적이며 요약적인 문체로 된 서신서, 상징적 이미지들을 표현하는 계시록 등 문헌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번역이 필요하다. 사본 상의 오류나 띄어쓰기가 없는 고대 사본의 경우, 단어들 간의 연결, 인용 여부 및 단락 범위 설정 등을 번역가가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영어의 ‘of’에 해당하는 속격의 다양한 용도로 인해서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스어 용어 번역 과정에서도 하나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 정확한 의미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번역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번역가는 본문의 선택과 해석에 관하여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날 독자들이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6. <제4부: 언어학과 번역 방법>

제4부에서는 언어학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언어학이 성서 번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형식 일치 번역(formal correspondence translations)과 내용 동등성 번역(dynamic or functional equivalence translations)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실패를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 언어의 성서 번역에서 제시하였다.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언어학과 번역”(L. Ronald Ross), “내용 동등성 번역”(Edesio Sánchez Cetina), “본문의 형식과 의미”(Kees F. de Blois), “성서 번역과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Bill Mitchell).

“언어학과 번역”에서는 특별히 최근의 언어학의 성과들이 어떻게 성서 번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살피고 있으며, 번역가들이 실제 작업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언어학적 문제들을 성찰한다. 가령, 다른 문화권에서 동일한 실재를 다르게 표현하는 언어 상대주의(linguistic relativity), 문화권 마다 언어의 의미를 달리하는 교차문화의 의미론(cross-cultural semantics)이 성서 번역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 등을 살핀다. 그리고 모든 언어가 유사한 어순과 문법 체계를 지닌다는 유형론과 언어 속에 내재하고 있는 가부장 문화로 인한 성차별

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테면 구약성서의 예레미야애가는 여성성을 예루살렘의 죄악성을 나타내기 위한 메타포로 사용함으로써 여성 차별적 언사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현대의 성서 번역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충고한다. 한편 사회언어학의 통찰은 모든 인간의 언어는 사회적으로 조건 지워진다는 사실을 번역가에게 상기시킨다. 성서의 언어는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언어습관을 내포한다. 가령, 구약의 아브라함과 노예와의 대화는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요구되었던 고대 유대사회의 문법적 표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학의 화용론의 연구 결과는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서의 언어가 당시의 일상 언어 환경에서 쓰이는 맥락과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와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서의 언어를 다른 토착어로 번역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것이 표기법(orthographies)의 문제이다. 토착어의 발음은 영어의 음가로 정확하게 표현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따라서 토착어의 음가를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표준 표기법이 정해져야 한다.

“내용 동등성 번역”에서는 성서 번역에 있어 직역보다는 내용 동등성과 의미 전달에 역점을 두는 번역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티나에 따르면 번역가는 자신이 번역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어떤 종류의 본문인지를 먼저 살펴 본 후, 그 텍스트의 원래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번역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이란 단순히 문장의 형태나 단어를 해당 언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의 의미를 올바르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내용 동등성에 역점을 두는 번역을 위해 시티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번역할 문장을 보다 넓은 문맥 속에서 위치시켜 이해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의미를 이끌어 낸다. 둘째, 번역할 문장의 사회적 문맥을 고려한다. 셋째, 번역할 텍스트에 있는 명확한 정보 뿐만 아니라, 내재된 정보까지도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자의 생략이나 수사적 질문과 같은 텍스트 내부의 문맥에 숨어있는 정보를 찾는다. 또는 텍스트의 외부의 문맥을 살핌으로써, 텍스트의 역사/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서 번역가들은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번역 작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형식과 의미”에서는 저자는 모든 언어는 소위 관용적 표현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독특한 방법들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영국인들은 역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며, “cats and dogs”라고 표현한다. 한편, 스페인 사람들은 이를 보고, “a cantaros”라고 한다. 이처럼 의미는 동일하지만, 표현의 수단은 다를 수 있다. 성서 번역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령 잠언 25장 22절과 로마서 12장 20절에 등장하는 “편 솥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관용구를 번역할 때, 번역가는 이에 내용적으로 상응하는 표현

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번역할 문장의 문학적 장르와 형식을 이해하는 일은 내용 동등성 번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예를 들어,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비유라는 문학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구약의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영적 관련성을, 남녀 간의 성애적 사랑이라는 알레고리를 통해 묘사한다. 만일 번역가가 비유와 알레고리라는 문학적 장르와 표현법을 알지 못한다면 정확한 번역 작업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는 비유적 표현이 등장한다. 성서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비유 언어를 발견한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진리와 생명의 길’(14:6), ‘문’(10:7)으로 묘사하며, 마태복음은 예수의 제자들을 ‘세상의 빛’(5:13-14)로 묘사한다. 한편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열쇠’라는 단어를 ‘권위와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처럼 신약 문서는 직유와 은유 그리고 환유를 동원한 비유 언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학적 표현 방법과 의미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고려할 때 내용에 충실한 번역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다.

“성서 번역과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토착화와 성서 번역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번역의 문제에 있어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와 공화국 시대를 거쳐 성서의 라틴 번역을 살펴보면, 번역 과정에 스며들어 있는 선교사의 이데올로기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성서가 라틴 아메리카의 토착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모국어와 정체성의 문제이다. 번역가는 토착민들의 인종적 정체성과 그들 문화의 재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번역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성서 번역은 현대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로부터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땅에 대한 권리와 반개발의 논리를 성서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성서의 본문으로부터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부당한 폭력과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과 근거를 보다 명확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번역의 필요성이다. 다시 말해, 성서와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을 해석학적으로 순환시키는 역동적인 번역을 저자는 강조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예수의 화육론은 이러한 토착화 해석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7. <제5부: 영어 성서와 스페인어 성서>

제5부에서는 영어 번역 성서와 스페인어 번역 성서에 관하여 다루는데, 세 개

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번역들”(Roger L. Omanson), “성서공회 전문가들과 영어 성서 번역의 새로운 시도”(David Burke), “스페인어 성서 번역들”(Plutarco Bonilla) 특별히 두 번째 장에서는 미국성서공회가 만든 Today’s English Version과 th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 관하여 자세히 다룬다.

“영어 번역들”에서 저자는 성서의 영어 번역사를 네 시기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관련된 참고 문헌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가장 초기의 영어 번역들의 시기로, 4세기 말 위클리프의 영어 완역이 나오기 이전의 번역들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성서의 일부만이 번역되어 나온 시기이다. 둘째, 『제임스왕역본』(King James Version) 이전 시기이다. 『틴델역』(Tyndale)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서 번역되었고, 그 외에 the Coverdale Bible (1535), Matthew’s Bible (1537), the Great Bible (1539), the Geneva Bible (1560), the Bishop Bible (1568), the Rheims-Douai Bible (1582-1610) 등이 나왔다. 셋째, King James Version의 시기이다. 1611 등장한 이래 250여 년간 영어권 성서 번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현대 영어 번역들의 시기로, 개인적인 신약성서 번역들이 등장하였고, 보수적인 복음주의 경향의 NIV, KJV 계열의 학문적인 번역인 RSV, NRSV, 대중적인 성격의 TEV, CEV 등 다양한 성격의 번역 성서가 등장하였다. 현대 영어 번역의 또다른 특징 ‘형제들아’와 같이 남성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표 명사들을 성적 구분을 배제하거나 포괄하는 용어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성서 번역은 가장 최근의 성서 번역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서공회 전문가들과 영어 성서 번역의 새로운 시도”에서는 번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로 알려져 있는 TEV(the Good News Bible로 불림)와 CEV 각각의 번역 배경, 번역 과정, 특징들에 대해서 다룬다. GNB/TEV는 나이다(Nida)의 제안으로 로버트 브래처(Robert G. Bratcher)를 위원장으로 해서 미국성서공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언어적 차이로 인한 형식 일치 번역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용 동등성 원칙을 적용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1966, 1976년). 개정을 거듭하면서 용어 설명은 물론, 학문적인 수정과 각주 처리, 성차별적 표현 배제, 반유대적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의 수정 등이 추가되었다. 썬어적 표현이나 고대의 기술적인 용어들은 현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되거나 암묵적인 설명으로 처리되었다(목록이 제시됨). CEV는 1984년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와 미국성서공회 번역부의 제안에 의해서 버클레이 뉴만(Barclay M. Newman)을 중심으로 도널드 존스(Donald A. Johns), 로버트 핫슨(Robert Hodgson, Jr.)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1991, 1995년 출판되었다. 성서 언어, 언어학, 번역 연구, 의사소통 분야, 영문학, 등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고, 번역 단계에서 100명 이상의 논평자들의 검토

를 받았다. 이 번역은 내용 동등성 원칙을 적용하였고, 특별히 독자나 청자에게 자연스럽게 읽히고 들리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 글에서 제시된 CEV의 특징은 이외에도 현대 독자나 청자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 읽기 쉽게 번역하는 것, 성의 차이나 배타적인 용어를 피하는 것, 반유대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피하는 것,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상적인 신학 용어들을 피하는 것, 현대 독자/청중에게 익숙한 단락 구문 및 편집, 시 번역을 살리는 것 등이다. 이 두 번역은 제2정경, 외경을 추가하여 카톨릭 교회나 정교회용의 성서도 출판하였다. 성서의 번역 작업과 사용에 있어서 에큐메니칼한 성격을 보여준다.

“스페인어 번역들”에서는 성서 번역이라는 것이 언어나 문화, 기타 다양한 경계선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와 관련하여 시작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스페인어 성서 번역의 역사를 개관해 준다. 저자는 스페인어 성서 번역의 역사를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Reina-Valera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스페인어 성서의 종류와 특징을 간단히 제시한다. 1569년 Casiodoro de Reina에 의해서 Reina(the Biblia del Oso, 표지에 나무 줄기에서 꿀을 찾는 곰이 그려져서 ‘곰 성서’라는 별칭이 붙었다) 성서가 번역된다. 이 성서는 여러 차례 개정되는데, 그 첫 번 개정이 1602년 Cipriano de Valera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Reina-Valera 성서로 불린다. 저자는 최근에 들어서 성서의 번역과 배포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의 성서 번역의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우선 개인 번역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한 팀 번역이 주로 이루어지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카톨릭 교회, 정교회가 서로 다른 신앙고백을 넘어서 성서 번역과 사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 부가되고 있고, 더 나아가 언어, 문화, 역사, 지리, 사회, 종교, 등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연구용 성서의 출판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8. <제6부: 기타 언어의 성서>

제6부에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행해지는 성서 번역을 살핀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지면 관계상 신지 못하는 그밖의 다른 지역의 성서 번역에 대해서는 이 책의 서문에 관련 참고 도서가 소개되어 있다. “아프리카의 성서 번역”(Philip A. Noss), “아시아의 성서 번역”(Graham Ogden), “유럽의 성서 번역”(Paul Ellingworth)의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프리카의 성서 번역”에서는 기원후 약 300년 경, 에집트 북부 지방의 사히드 방언으로 성서가 완역되고, 그 외 곱틱 방언들의 번역, 보히르 방언의 번역이 등장한다. 카르타고 지역의 라틴어 번역은 “Afra”라고 불린다. 500년경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악숨(Axum) 지역의 방언으로 된 총 81권으로 구성된 ‘게즈 성서’(The Ge’ez Bible)가 탄생한다. 사하라 남쪽에서는 15세기 말까지 성서가 전해졌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대의 아프리카 언어로 된 성서 텍스트의 가장 초기 번역들은 교리문답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투어로 된 최초의 출판물은 1548년 경 리스본에서 출판된 키콩고(Kikongo) 교리문답이다. 아프리카에서 성서 번역에 힘썼던 이들은 로버트 모팻(Robert Moffat) 같은 평신도 선교사, 사무엘 앗자이 크로우더(Samuel Adjai Crowther) 같은 아프리카 교회 지도자, 요한 루드비히 크랍프(Johann Ludwig Krapf) 같은 선교 목사, 찰스-마르셀 알르맹드 라비게르(Charles-Martial Allemand Lavigerie) 같은 교회 지도자이며 선교회 설립자, 등이 있다. 저자는 아프리카 성서 번역사를 초기 교회 시대, 선교 시대, 현대로 나누어 설명한다. 주로 선교 시대 말기에 선교 지역의 교회에서 현지 모국어를 사용하고 성서와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성서공회의 조직 또한 성서 번역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현대에는 현지 번역가와 성서공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협력하여 성서 번역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SIL과 같은 성서 번역 기관들이 협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약 성서 번역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용 성서도 출판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 언어의 2/3 이상이 번역 성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프리카에서는 개별 지역어의 번역보다는 공용어나 혼합어 번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의 성서 언어는 예배, 찬송, 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당 언어를 표준화하는 데도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확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아시아의 성서 번역”에서는 아시아 대륙은 매우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땅이다. 이 지역에서의 최초의 성서 번역으로는 2세기 중엽 시리아어 번역을 꼽을 수 있다. 16세기 이전까지 몽골 성서, 말라이 성서 등을 비롯하여 개별 문서 번역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교가 활발해지면서 바르톨로뮤 지겐발크(Bartholomew Ziegenbalg),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헨리 마틴(Henry Martyn), 애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 멜키오르 라이데커(Melchior Leidekker), 존 로스(John Ross) 같은 선교사들에 의한 성서 번역이 적극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이러한 지역 언어로의 성서 번역은 그 지역의 문맹을 퇴치하는 데 기여하였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서 번역 프로젝트가 360여 개에 달하고 있고, 지역 교회와 지역 언어를 모국어로 하

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연구용 성서와 문맹자들을 위한 ‘듣는 성서’의 번역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북동인도, 한국, 필리핀의 주요 성서 번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의 성서 번역”에서 가장 초기의 성서 번역은 라틴어 번역을 제외하고는 비유럽어 번역이었다. 19세기 초반까지는 전체 성서 번역어 중에서 유럽어가 70%를 차지하였는데 19세기 말에는 15.3%, 21세기 말에는 8.8%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어 번역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언어 12개 중에서 6개가 유럽 언어인 점을 생각한다면, 유럽어 성서 번역의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유럽 언어는 크게 인도-유럽어와 비인도-유럽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도-유럽어에서는 게르만어 계열에서는 독일어의 루터역이 자국어 성서 번역을 자극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그 외 영어, 스웨덴어, 아이슬란드어, 노르웨이어, 프리슬란트어 등의 번역 성서가 있다. 로망스어 계열은 카톨릭 교회와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서를 필두로 하여,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루마니아어가 해당된다. 슬로브어 계열로는 9세기 시릴과 메소디우스의 성서 번역 활동을 들 수 있고, 체코어, 폴란드어, 슬로바니아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우크라이나어, 마케도니아어가 해당된다. 현대 그리스어 성서도 인도-유럽어에 속한다. 그 외 발트어, 켈트어, 알바니아어, 루마니아 방언, 인도-이란어가 있다. 비인도-유럽 언어로는 히브리어, 몰타어, 바스크어, 그린란드어족, 핀-우가릿어족, 터키어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럽 언어의 성서 번역은 최근 공용어 번역에 대한 관심에서 소수 언어에 대한 전문화된 번역에 관심을 이동하고 있다. 또한 일상어(구어) 번역 외에 문학적, 예배용 성서, 오디오-비디오용 성서 번역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카톨릭 교회, 정교회 연합의 번역 사업 또한 활발한 추세이다.

9. 평가 및 결론

여기에서는 이 책에 수록된 개별 논문이나, 각 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보다는 이 책의 전체적인 특징과 공헌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며 장점은 성서를 번역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성서 번역을 단순히 번역 원리나 기술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성서 본문 자체의 성격 문제, 성서 본문의 전래 과정에서 초래되는 문제, 성서 본문의 이해 문

제, 새로운 언어로 기존의 본문을 옮기는 문제, 실제 번역 작업에서 발생하는 실례들, 이러한 성서 번역이 갖는 의의와 결과 등을 다룸으로써, 성서 번역이 다양한 분야들의 연구와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간학문적 성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성서 번역을 보다 넓은 전망에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 줌으로써 성서 번역에 대한 확장된 안목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책의 이러한 특징은 이 책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저자가 전체 내용을 집필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내용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집필은 대개 유사한 문제점을 지니게 되는데, 이 책에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그대로 발견되었다. 그것은 개별 논문들 간의 연결이 취약하다든가,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언급된다든가, 논점이 다소 상이하든가 하는 문제이다.

이 책의 각 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성서에 대한 이해, 성서 번역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점, 최근 성서 번역의 경향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은, 성서의 문자적 이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서를 그것이 탄생한 토양에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차 관문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준다. 많은 성서의 사본들과 이독들은 성서 연구자들이나 번역가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번역가는 본문 비평의 연구 결과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의 신학적 입장이나 문화적 맥락 등에 따라서 특정 독법이나 의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엄격한 의미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가는 성서 번역과 관련된 부분의 연구 결과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번역에 개입된 특정한 맥락들을 독자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의 성서 번역은 형식 일치의 번역보다는 내용 동등성의 번역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형식성이 뛰어난 시 번역에 대한 관심은 특정 이론 중심의 번역이 아니라, 총체적인 전망에서 성서 번역에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상어 중심의 번역으로부터 특정한 요구를 지닌 대상들을 위한 번역이나 보고 듣는 성서, 예배의식용 성서 등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번역의 시도는 성서 번역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 주요어

성서의 배경, 성서 본문, 정경, 주석, 해석, 번역.

Biblical context, Biblical text, canon, exegesis, interpretation, translation.

<Abstract>

Book Review – *Discover the Bible: A Manual For
Biblical Studies*

(Roger Omanson, e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1)

Prof. Seon-Jeong Kim
(Yonsei University)

This book dealing with the various aspects of Bible translation is composed of 24 chapters written by specialists in the field. Its premise is that the task of translating the Bible is not simply the strict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translation, or the finding of equivalent words between biblical and modern languages. Rather, the task extends to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biblical texts, various readings of manuscripts, the context of the Bible, linguistic differences among languages, and specific problems of translating in practice. *Discover the Bible* suggests that the work of translating the Bible requires interdisciplinary studies. Although there are some shortcomings - discontinuity among articles, overlapped contents and some contradictory suggestions - this manual is useful in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what biblical translation is. Further, it provides a useful introduction to recent attempts in modern Bible translation.